

15 [하느님의 현존을 실천하기]

로렌스 수사

-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느냐다.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할 수도 있다.
- 로렌스 수사에 따르면 하느님으로 가장 짧은 길은 “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”이다.
- 그는 그 자신은 아주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느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것이다. 또 그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하느님을 더욱 높이 받들게 되었다고 말한다. 그는 군인 친구에게 “할 수 있는 한 하느님을 많이 생각하라”고 권하면서 이렇게 실천해나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의 현존을 실천하게 된다고 말했다.
- 그는 고통을 ‘하느님으로부터의 혜택’으로 여기라고 조언했다. 로렌스 수사가 볼 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다.
- 우리는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세상이 점점 파편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. 그에 대한 방비책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로렌스 수사의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.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 있다.
- 사랑 속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모든 신체적 고행이나 기타 수련은 아무 소용이 없다. 하느님에게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 수행함으로서 그분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다.
-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 혹은 쾌락은 내가 영적 상태에서 맞본 고통과 쾌락에는 급교가 되지 않는다.
- 나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관심과 이해를 포기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. 어떤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신앙만이 그분에게 다가가는 나를 만족시켰다.
- 나는 주님의 실제적 현존을 체험했다. 달리 말하면 그것은 내 영혼과 주님 사이의 은밀한 대화다.